



SK “OK”

삼성에 1 대 6 → 12 대 8 ‘대역전 드라마’

한국시리즈 3차전
김강민 6회 3점포

SK 와이번스가 삼성 라이온즈와의 한국시리즈에서 2연패 뒤 첫 승을 올리고 반격에 성공했다.

SK는 28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2012 한국시리즈(7전4승제) 3차전에서 홈런 세 방을 포함해 17안타를 때려내며 12-8로 재역전승했다.

전날 우천으로 하루 연기된 이날 3차전에서는 그동안 잠잠했던 SK 방망이가 터졌다. SK의 ‘불량방이’에 삼성의 ‘철벽 불펜’도 속수무책이었다.

삼성이 0-1로 뒤지던 3회말 대거 6점을 뽑으며 3번째 승리를 가져가는 듯 했다.

무사 1루에서 나온 김상수의 보내기번트 때 SK 투수 부시의 1루 송구가 빠져 무사 2-3루가 됐다. 배영섭이 몸에 맞는 공으로

살아나가 만루가 되자 SK는 채병용을 투입했다. 그러나 채병용이 정형석에게 밀어내기 볼넷으로 동점을 허용한 뒤 이승엽에게 2타점짜리 좌중간 안타를 얻어맞으며 1-3 역전을 허용했다.

공세를 늦추지 않은 삼성은 1사 1-3루에 터진 최형우의 석점 홈런으로 순식간에 6-1까지 점수 차를 벌렸다.

물러설 곳 없는 SK는 이후 끈질기게 추격했다.

3회말 최정과 박정원의 2루타로 만회점을 뽑은 SK는 김강민의 중전안타로 한 점을 더 보냈다.

4회에는 선두타자 박진만이 삼성의 바뀐 투수 차우찬으로부터 좌월 솔로 홈런포를 터트리며 기를 꺾었다. 이후 내야안타로 출루한 정근우가 포수 송구실책과 심창민의 폭투에 홈을 밟으며 점수는 5-6이 됐다.

삼성이 5회 조동찬의 1타점 2루타로 1점을 더했지만 6회말 승부가 갈렸다. SK 선두타자 박진만의 2루타가 재역전

극의 신호탄이었다. 임훈의 번트 안타로 만들어진 무사 1-3루에서 정근우가 중전 안타로 박진만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1사 1-2루에서 삼성 유격수 김상수가 중견수 쪽으로 빠져나가는 최정의 타구를 몸을 던져 잡아냈지만 1루 악송구가 나오면서 두 명의 주자가 득점에 성공, SK가 8-7로 앞섰다.

박정권이 고의사구로 걸어내간 2사 1-2루에서는 김강민이 안치만을 상대로 좌월 3점포를 뽑아내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5-7로 뒤진 5회 2사 2루에서 마운드에 오른 SK 네 번째 투수 송은범은 2이닝 무실점으로 역전승의 발판을 놓으며 승리투수가 됐다. 데일리 MVP는 김강민에게 돌아갔다.

반전에 성공한 SK는 29일 오후 6시 문학구장에서 열리는 한국시리즈 4차전에 좌완 김광현을 선발로 내세운다. 삼성은 외국인 투수 탈보트를 선발로 예고했다.

“홈런이다”

28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2012 팔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 SK와 삼성의 경기 6회말 2사 1-2루. SK 김강민이 승기를 잡는 3점 홈런을 때린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랑이굴 ‘부상병동’

KIA 한기주·김선빈 수술대

홍성민·이종환도 캠프 하차

‘부상’이 KIA 스토브리그의 화두가 되고 있다.

KIA 타이거즈의 2012시즌은 부상으로 얼룩진 한해였다. 타선의 중심 이범호·최희섭·김상현의 줄부상 속에 지난 시즌 불펜의 셋별로 떠올랐던 심동섭이 팔꿈치 수술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한기주도 어깨와 팔꿈치, 손가락 통증으로 올 시즌 16경기에 출전하는데 그쳤다.

시즌이 끝났지만 KIA의 부상은 끝나지 않았다.

투수 한기주가 먼저 수술대에 올랐다. 지난 시즌이 끝나고 오른쪽 손가락 염증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던 한기주는 통증이 재발하면서 정확한 원인 진단을 위해 미국행을 선택했다. 수술까지 염두에 두고 떠났던 한기주는 결국 통증원인을 찾기 위해 중지와 손바닥 부위에 칼을 찔렀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투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위인 만큼 한기주의 ‘부상과의 싸움’은 진행형이다.

김선빈도 병원을 찾아야 한다. 지난 시즌 타구에 맞아 코뼈 골절상을 당했던 김선빈은 올 겨울 수술부위에 대한 교정 수술을 받아야 한다.

‘독한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오키나와에서도 부상병이 생겨나고 있다. 투수 홍성민과 외야수 이종환이 허리와 팔꿈치 부상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마무리 캠프를 앞두고 허리 통증을 호소했던 홍성민은 장기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훈련을 중단하고 짐을 싸들었다.

북귀전에서 깜짝 홈런포를 날리며 기대를 모았던 ‘에비역’ 이종환도 훈련 도중 팔꿈치 인대 파열 부상을 당하면서 캠프에서 중도 하차했다.

올 시즌 부상에 신음했던 KIA가 부상과의 끝까지 싸움으로 힘겨운 가을을 보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꿀씨 추락

인천에 2-3 역전패

K리그 ‘생존’ 위기

승리 사냥에 실패한 광주가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광주 FC가 지난 27일 인천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K리그 37라운드 경기에서 박정민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2-3 역전패를 기록했다.

반면 강원이 상주전 몰수승으로 승점 3점을 더하면서 광주는 그룹 B 7위가 됐다. 강등이 확정된 상주를 제외하고 사실상 끝났다.

광주의 ‘선제골-동점-역전골-동점-역전패’라는 패배공식이 계속됐다.

이번에도 선제골은 광주가 기록했다. 전반 9분 이용의 도움을 받은 박정민이 오른쪽

슈팅으로 인천의 골문을 흔들며 자신의 프로데뷔 골이자 팀의 선제골을 장식했다.

하지만 전반 15분 인천 이보에게 골을 내주며 승부는 이내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반 23분 이승기의 발이 역전의 시작점이 됐다. 코너킥 찬스에서 이승기가 왼발로 띄운 공을 이용이 왼발 슈팅으로 연결시키면서 광주가 2-1 역전에 성공했다.

그러나 역전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3분 뒤 인천의 첫 골을 기록한 이보가 이번에는 한교원의 골을 도우며 2-2를 만들었다.

앞선 성남과의 경기에서처럼 골대 불운까지 겹친 광주는 후반 14분 터진 설기현의 한방에 무너지면서 두 경기 연속 2-3의 역전패를 당했다.

승점 33점에 머문 광주는 35점의 강원에 최하위 자리를 넘겨받으면서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성용 90분 ‘스완지의 중심’

5G 연속 풀타임 ... 팀은 패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기성용(23)이 5경기 연속 풀타임 활약했지만, 소속팀 스완지시티는 강호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에 0-1로 패했다.

기성용은 28일 영국 맨체스터의 이티하드 경기장에서 열린 2012-2013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전·후반 90분을 모두 소화했다.

중장 미드필더로 나선 기성용은 경기 초반 상대의 볼파를 놓치는 실수를 한차례 하긴 했지만 이후 중원 조율사로 안정적인 활

약을 펼쳤다. 상대 공격을 막는 1차 저지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기성용은 날카로운 패스로 동료의 공격 기회를 열어주는 등 중원 양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기성용은 이날 경기까지 정규리그에서 5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었고, 지난 8월29일 리그컵에서 데뷔전을 치른 이후 9경기 연속 출전기회를 얻어 팀의 핵심전력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렸다.

스완지시티는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를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후반 16분 카를로스 테베스에게 선제 결승골을 얻어맞아 0-1로 패했다.

/연합뉴스

박주영 10분 “기회가 없었어”

후반 교체투입 ... 2호골 실패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셀타 비고가 10명이 싸우는 불리한 상황에서 힘겹게 무승부를 따냈다.

셀타 비고는 28일 스페인 비고 갈리시아의 발라이도스 경기장에서 열린 데포르티보 라코루냐와의 2012-2013 정규리그 9라운드 홈 경기에서 한 골씩을 주고받아 1-1로 비겼다.

올 시즌 처음으로 무승부를 기록한 셀타 비고는 3승1무5패(승점 10)가 됐다.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박주영은 후반 39분 최전방 공격수인 이아고 아스파스를

대신해 경기장에 투입돼 인저리 타임까지 10여 분을 뛰었지만 기대했던 시즌 2호골 달성에는 실패했다.

전반 8분 마리오 베르네호의 선제골로 앞서간 셀타 비고는 전반 29분 라코루냐의 후안 도밍게스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상승세를 잊지 못했다.

게다가 후반 3분 경고를 받은 수비수 구스타보 카브랄이 3분 만인 후반 6분에 페널티 지역 오른쪽을 파고들던 상대 공격수를 막다가 또 한차례 경고를 받고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해 10명이 후반전을 버텨야만 했다.

/연합뉴스

박지성 0분 “무릎부상 때문에”

아스널전 올시즌 첫 결장

베테랑 프리미어리그 박지성(31·퀸스파크 레인저스)이 올 시즌 처음으로 결장했다.

박지성은 27일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나오지 않았다. 교체 출전자 명단에서도 제외돼 출전 가능성도 애초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 휴즈 감독은 “박지성이 지난주 에버턴과의 홈경기에서 무릎을 무리했다”고 구단을 통해 밝혔다.

박지성은 지난 22일 에버턴과의 홈경기에서 풀타임으로 뛰었으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휴즈 감독은 이날 경기가 열리기 전 박지성을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 불러 컨디션이 출전에 적합한지 검사했다고 밝혔다.

미드필더 박지성이 선발 출전자 명단에서 빠진 것은 올 시즌 처음이다. 그는 이날 경기 전까지 프리미어리그 경기 8차례, 리그컵 경기 2차례 등 11차례 경기에서 모두 선발로 뛰었다.

후반 중반에 교체돼 벤치로 들어간 적이 두 차례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풀타임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다.

/연합뉴스

“아쉽다”

스완지시티의 기성용이 27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2012-2013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0-1로 패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기성용은 이날 원정 경기 전·후반 90분을 모두 소화했다.

/연합뉴스